

# 활로 못찾는 수출, 2% 줄어 489억弗… 5개월째 하락

## 산업부, 4월 수출입 동향

반도체 값 하락, 中 경기둔화 영향 수입 2.4% 증가한 447.4억 달러

반도체 가격 하락과 중국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수출이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19년 4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488억6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0% 감소했다. 수출 하락세는 지난해 12월부터 5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

수입은 전년 대비 2.4% 증가한 447억4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원유, 액화천연가스(LNG), 가솔린차, 가죽가방 등을 중심으로 수입이 증가했다. 무역수지는 41억2000만달러로 87개월 연속 흑자를 유지했다.

산업부는 4월 수출은 전체 물량 증가(2.5% ↑)에도 반도체 가격 하락, 중국 경기 둔화 지속 등의 영향으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를 제외한 경우 수출은 0.8% 늘어난다.

수출 감소에도 산업부는 2개월 연속



박태성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이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4월 수출입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수출 감소폭이 둔화된 점은 긍정적이라는 입장이다. 수출은 작년 12월 -1.7%, 올해 1월 -6.2%, 2월 -11.4%, 3월 -8.2%, 4월 -2.0%를 기록했다.

전체 수출 규모도 올해 2월부터 다소 증가하는 추세이다. 4월 수출 물량은 2.5% 증가로 반등한 반면, 수출 단가는 지속해서 4.4% 하락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반도체 수출은 단가가 51.6% 하락한데다 글로벌 IT기업의 재고 조정이 계속되고 중국 스마트폰 수요가 정체되면서 13.5% 하락했다.

석유화학 부문은 수출물량 증가

(7.6%)에도 글로벌 수요 둔화 및 미국의 공급물량 확대로 5.7% 감소했다.

산업부는 지난달부터 기준 13대 주력 품목 외에 신산업을 반영한 20대 주요 품목 수출 동향을 집계하고 있는데 이들 20개 품목 가운데 9개 품목은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5.8%), 선박(53.6%), 일반기계(0.3%) 등 주력품목이 선전했고 이차전지(13.4%), 바이오헬스(23.3%) 등 신산업의 호조세가 이어졌다.

지역별로는 중국 수출이 4.5% 감소하면서 6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하

지만 경기부양책 및 중국의 세계 수출 확대 등으로 대중 수출 감소율은 둔화하는 추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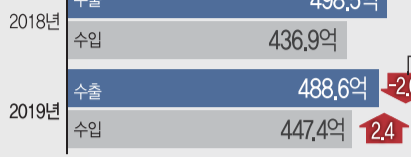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지역에 대한 수출도 이들 주요국의 대 중국 수출 감소와 맞물리면서 1.0% 줄어들었다.

미국은 자동차와 기계, 5G(5세대) 통신망 장비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3.9% 증가하면서 7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다.

신흥시장인 베트남·인도·독립국가연합(CIS)·중남미 수출도 증가세를 이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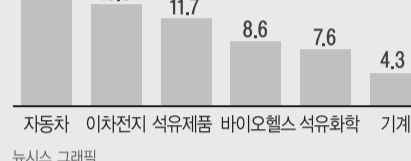
## 4월 수출입 실적

통관기준 잠정치, 단위: 달러



## 주요 품목 수출 증감률

4월1~25일 기준, 단위:%



뉴스1 그래픽

갔다.

한편, 이날 한국은행에 따르면 1분기 반도체 수출물량지수는 478.64(2010=100)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4분기(544.03)보다 12.0% 줄어든 수치다. 전기 대비 하락률은 2009년 1분기(18.6%) 이후 가장 크다.

수출물량지수는 2010년을 기준으로 어떤 상품의 수출물량 변동 추이를 보여주는 통계다. 반도체 수출물량지수가 하락했다는 것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업체들이 그만큼 수출을 많이 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자동차 수출도 부진했다. 1분기 자동차 수출물량지수는 작년 4분기보다 12.2% 하락했다.

이동전화기도 1분기 들어 18.2% 내렸다. 지난해 3분기(5.7%), 4분기(10.8%) 하락한 데 이어 내림세가 커졌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2단계 수출활력추진단을 5월부터 가동해 현장에서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며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이번 추경에 편성된 3233억원을 조속히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metroseoul.co.kr

## 늦어도 7월엔 금리 내릴 듯

» 1면 '성장률 3.2%美...서 계속

무디스, 성장률 2.3→2.1% 조정 등 신용평가기관 곳곳서 하향조정 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1분기 GDP 성장률 3.2%로 잘 하고 있다”면서 “놀랍도록 낮은 인플레이션과 함께 우리는 주요한 기록을 세울 수 있고 동시에 우리의 국가채무를 작게 보이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금리를 올려왔고 매우 큰 양적긴축 시행했다”고 지적하며 “금리를 1% 낮추고 어느 정도 양적완화를 시행한다면 우리는 로켓처럼 상승할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 역성장, 저물가에도 “금리인하 고려 안 해”

한국경제는 올해 1분기 -0.3% 역성장했다. 특히 설비투자는 10.8% 줄어 IMF가 한창이던 1998년 1분기 -24.8% 이후 21년 만에 가장 낮았다. 게다가 물가상승률은 3개월 연속 0%대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로 기존보다 0.1%포인트 낮췄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도 1.1%로 0.3%포인트 내려잡았다.

저성장, 저물가 상황이 계속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와 함께 금리인하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그러나 이주열 한은 총재는 여전히 금리인하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이 총재는 “금리인하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성장전망, 물가, 금융안정 상황 등을 짚어볼

때 디플레이션 가능성은 낮다는 판단이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리인하 요구에 대해 “금리에 대한선 언급하기가 적절하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당장 성장률 전망치도 수정할 계획이 없다.

정부가 제시한 연간 성장률 목표치는 2.6~2.7%로 한은의 전망치보다 0.1~0.2%포인트 높다. 홍 부총리는 “지금로서는 정부가 제시한 성장률을 수정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미국은 3%대 성장에도 불구하고 금리인하를 고려 중인 상황에서 마이너스 성장을 한 한국이 경제상황에 대해 관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연내 금리인하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올해 한국성장률 전망치를 1.8%로 대폭 하향조정된 노무라증권은 한국경제에 대해 비판적인 전망을 내놓으며 “한은은 2020년 1분기 말까지 두 차례 기준금리를 낮춰 연 1.25%까지 인하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글로벌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기존 2.3%에서 2.1%로 하향조정했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도 2.5%에서 2.4%로 낮춰잡았다. LG경제연구원은 올해 성장률 전망을 기존 2.5%에서 0.2%포인트 내린 2.3%로 전망했고, 올해 성장률을 2.5%로 제시한 현대경제연구원도 하향조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김지만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늦어도 7월엔 기준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으로 본다”며 “한은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1.4%에서 1.1%로 낮췄지만 0.7%까지 추가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희주 기자

## 이주열 “2분기부터 경기 좋아질 것”

(한국은행 총재)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엔 일축 “수출·투자 부진 차츰 완화 전망”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분기 -0.3% 성장에도 향후 경기가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축하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이 총재는 1일(현지시간) 피지 난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2분기부터는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2분기 지표는 지금과는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제22차 아세안(ASEAN)+3(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하기 위해 피지를 방문했다.

이 총재는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발표된 후 몇몇 기관들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크게 낮췄다”며 “(일부 기관이 1.8%까지 낮춘 것은) 그야말로 최악의 시나리오로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분기 성장률을 너무



지난달 18일 태평로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한 이주열 한국은행총재가 회의 시작 전 금융통화위원들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의식하는 것 아닌가 한다”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한은은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0.3%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재정 지출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수출과 투자가 부진했지만 차츰 완화되면서 성장률도 점차 높아질 것이라고 지난 4월 전망한 바 있다”며 “2분기부터는 나아질 것으로 보

고 있어 현재로서는 기존 스탠스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금리인하 가능성에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이 총재는 “글로벌 요인이 점차 개선되면서 앞으로 성장세가 회복되고, 물가 상승률도 1%대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한다”며 “그런 전망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기준금리 인하를 검토할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장기 시장금리가 기준금리를 밑도는 등 시장 분위기가 기준금리 인하에 무게를 두는 데 대해서는 “앞서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한 것과 관련해 이 총재는 글로벌 달러강세, 1분기 지표 부진에 외국인 투자자 배당 역송금 같은 계절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전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168.2원에 마감하며 2년 3개월 만에 증가 기준 최고치를 경신했다.

/김희주 기자 hj89@

## “韓, 저성장 고착화 위기… 투자 높여야”

한경연 ‘위축경제 징후와 원인’ 보고

한국경제가 저성장 고착화 위기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투자 활력을 높여야 한다는 분석이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일 ‘위축경제 징후와 6가지 원인’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경연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2012년부터 7년 연속으로 국내총생산

(GDP)이 잠재 GDP를 밑돌고 있다고 봤다.

이러한 마이너스 아웃풋 겹 상태다. 2000년대에는 2001년, 2005년, 2009년에만 있었던 현상이 10년 가까이 이어진 셈이다.

지나친 공공영역 확대가 문제로 지적됐다. 정부지출이 3년간 경제성장률보다 2배나 빨리 증가했다는 것. 구체적으로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정부지출이 22% 늘어났지만, GDP는 절반인

11.2%밖에 늘지 못했다.

한경연은 정부 지출 증가가 조세 및 국채 발행 증가와 투자 및 소비여력 감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규제 증가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도입 ▲생산인구 감소 ▲낮은 노동생산성 ▲기업가 정신 후퇴 ▲주력산업 노쇠화 ▲신산업 출연 지연 등도 이유로 꼽았다.

대응방안으로는 성장 중심 정책프레임을 확립하고 투자 활력을 제고하는 등을 요구했다. 분배 개선을 위해 성장에 주력해야 한다며, 기업친화적 분위기 조성도 강조했다. /김재용 기자 juk@